

- 주요 뉴스: 미국 소비심리 및 주택가격, 향후 성장 둔화 신호를 발신
 - 독일 및 스페인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 중국, 고령층 코로나 19 백신 접종 강화할 방침. 경제활동 재개 기대 증가
 - OPEC+, 12월 회의에서 기존 생산 규모 유지할 가능성. 일부는 감산 전망 제시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 파월 의장 연설 경계감과 중국의 봉쇄 완화 기대 등이 영향

주가 하락[-0.2%], 달러화 강세[+0.1%], 금리 상승[+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인상 경로 불확실성, 주요 경제지표 부진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중국의 봉쇄 완화 기대 불구 기술주 약세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매수 증가
유로화가치는 0.1% 하락, 엔화는 0.2%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지속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등으로 7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24.8원, -1.8원) 0.1% 하락, 한국 CDS 하락

		11/29일	11/28일	전일대비			11/29일	11/2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957.6	3,963.9	-0.16%	국채 금리 10y	미국	3.75%	3.68%	7bp
	유럽	437.29	437.85	-0.13%		독일	1.92%	1.99%	-7bp
	중국	3,149.7	3,078.5	2.31%		영국	3.10%	3.13%	-3bp
	일본	28,028	28,163	-0.48%	CDS 5y	한국	50bp	51bp	-1bp
	한국	2,433.4	2,408.3	1.04%		중국	78bp	84bp	-6bp
환율	달러지수	106.82	106.68	0.13%	위험 지표	EMBI+	-	394	-
	유로화	1.0326	1.0340	-0.14%		VIX	21.89	22.21	-1.44%
	엔화	138.69	138.95	0.19%		WTI유	78.20	77.24	1.24%
	위안화	7.1593	7.2069	0.66%	원자재	구리	363.0	361.2	0.50%
	원화	1,326.6	1,340.2	1.03%		금	1,749.4	1,741.4	0.4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소비심리 및 주택가격, 향후 성장 둔화 신호를 발신

-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00.2로 전월(102.2) 대비 하락하며 4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세부항목 가운데 단기 경제전망 관련 지표들이 부진했으며, 인플레이션 기대 역시 4개월 만에 최고 수준. 또한 주택, 자동차, 가구 등 고가제품에 대한 소비 의지가 취약
- 이번 결과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등이 원인. 이러한 요인들이 내년에도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
- 일부에서는 금년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양호한 매출 등을 이유로 경제 관련 긍정적 시각 피력. 이는 견조한 노동시장과 가계 재정이 배경. 다만 연준의 고금리 유지 가능성 등으로 이러한 소비행태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
- 한편 9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은 전년동월비 10.4% 올라 전월의 상승률(13.1%) 대비 낮은 수준. 전월 대비로도 1.2% 하락. 이는 모기지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 BofA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CEO는 연준의 통화정책 등으로 향후 2년 정도 주택시장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추가 금리인상 필요. 금리인하는 물가하락 여부에 좌우

- 블라드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 한편 금리인하는 의미 있는 수준의 물가하락이 가능하다는 판단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고 부연
- 리치몬드 연은 바킨 총재는 향후 연준의 금리인상 폭이 축소되어야 하지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최종금리가 기존 예상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 또한 상향된 최종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해서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첨언

■ 미국 사이버먼데이 온라인 매출, 경기침체 우려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 Adobe Analytics에 따르면, 금년 사이버먼데이 온라인 매출은 전년비 5.8% 늘어난 113억달러로 추정. 다수의 주요 소매업체들은 향후에도 할인판매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 다만 온라인 판매 비중은 전체 소매판매의 15% 비중에 불과하여 경제 전반이 양호하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Allianz Trade)

■ ECB 부총재,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

- 데 쿼도스 부총재는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수준의 통화긴축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

■ 독일 및 스페인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 11월 독일 및 스페인의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은 전월 대비 하락(각각 11.6%→11.3%, 7.3%→6.6%). 이번 결과는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기인. 다만 기저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로 ECB의 통화긴축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고 기대(Bloomberg Economics)

■ 영란은행 총재, 국채시장은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

- 베일리 총재는 국채시장이 최근 수개월 동안 있었던 대규모 채권매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평가. 이에 국채매도를 대규모로 추진하는 방안은 현 상황에서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

■ 중국, 고령층 코로나 19 백신 접종 강화할 방침. 경제활동 재개 기대 증가

- 국무원은 노인들이 더 편리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일부 전문가들은 고령층에 대한 접종 확대가 향후 방역정책 완화 및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해석
- 11/28일 신규 감염자는 38,645명으로 전일(40,347명) 대비 감소. 당국은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하겠다고 강조

■ OPEC+, 12월 회의에서 기존 생산 규모 유지할 가능성. 일부는 감산 전망 제시

- 관계자들에 따르면, 12/4일 예정된 OPEC+ 회의에서 원유 생산 규모를 그대로 지속하는 방안을 채택할 전망. 다만 일부에서는 최근의 유가 하락 및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등을 고려하여 감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30 현지시각 기준)

- 연준 파월 의장 및 쿡 이사 강연, 연준 베이지북, 미국 10월 JOLTS 구인건수
-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 중국 11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및 서비스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탈출은 쉽지 않은 과제 - Project Syndicate

(No Easy Exit from Zero-COVID)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는 노인들의 낮은 백신 접종률과 고통스러웠던 홍콩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인구밀집 지역에서 의료 자원에 대한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이 공중보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인 중국이 가진 장점은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점진적인 봉쇄완화 통해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아울러 지난 40여년의 경제 개혁·개방 경험이 유용한 교훈을 제공
-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간 협력과 사전준비가 중요. 고조되는 대중의 불만에도 제로 코로나 탈출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

■ BlockFi 파산신청, 암호화폐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시사 - Financial Times

(BlockFi/FTX: further collapse suggests ecosystem is unsustainable)

- 과거 테라·루나 사태 당시 위기를 겪었으나 FTX의 금융지원으로 회생했던 암호 화폐 대출 업체 BlockFi가 파산을 신청. 해당 기업은 수 주 동안 구조 조정을 거친 후 회생 가능성을 주장하나 단기간 내 회생은 어려울 소지
- 이는 BlockFi가 파산 보호 신청 중인 FTX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어렵기 때문. 또한 BlockFi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암호화폐 산업의 기반이 견고하지 못한 점도 걸림돌로 작용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경제적 고난과 시위로 연결 - The New York Times

(China Protests Over 'Zero Covid' Follow Months of Economic Pain)

-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청년실업, 기업이익, 성장 등에 부정적 영향. 특히 관련 규제 완화 시 질병확산이 우려되며, 현 정책 유지 시 이미 둔화되는 경제성장에 더 큰 피해를 미칠 수 있어 마땅한 대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
- 코로나 19 규제로 인한 불안이 커지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명성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 또한 부동산 경기와 중소기업 경영난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
- 관련 여파는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익 감소가 지속. 이에 따라 주요 기관들의 중국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

■ 연준의 통화긴축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경기침체 신호를 강화 - 블룸버그

(Fed, China and Crypto Are Fueling Market's Recession Warning)

- 연준의 통화긴축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증폭.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는 글로벌 수요 부진을 의미하는 유가 하락을 초래. 만일 중국이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해진다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하기 쉬우며, 이 또한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
- 한편 연준이 경기침체 신호로 주목한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의 역전 현상도 지속. 이는 채권시장에서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을 예상한다는 의미
- 또한 연준의 유동성 흡수는 암호화폐 등 고위험 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연결. 고위험 자산의 가격 상승은 '23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려우며, 현재로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미국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 간 차이,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의 주요 변수 - 블룸버그

(Fed to Get Some Help in Pausing as Inflation Gauge Gap Shrinks)

■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 합의 실패, 더 강한 규제를 불러올 우려 - 블룸버그

(Here's What Would Happen If EU Can't Agree on Russian Oil Price Cap)

■ 중국발 경기침체 우려, 미국 국채금리 하락 효과의 지속성에는 의문 - 블룸버그

(China Worries Help Fuel the Bond Market Rally)

■ 유럽의 러시아 가스 수입 증가, 에너지 위협에 대한 취약성 등에 기인 - Financial Times

(Europe's imports of Russian seaborne gas jump to record high)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